

# 전주 전통한지 삽입 지역사회교과서 확대

한지산업지원센터,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올해 남원 추가 총 5개 시·군에 보급

전주 전통한지가 삽입된 초등학교 3학년 지역사회교과서가 도내 5개 시·군으로 확대 보급된다.

한국전통문화재단(원장 김도영)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의 협약에 따라 전주·완주·임실·부안 등 기존 4개 시·군에 배포해 왔던 전주전통한지 삽입 초등학교 3학년 지역사회교과서를 올해 남원을 추가해 총 5개의 시·군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13일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김진중, 강갑석, 김인수, 최성일 등 전주한지장 4인이 직접 제작한 전통한지 3,200여 장(A4 기준 16,000여 장), 색한지 3,000여 장을 학생들의 지역사회 교과서로 보급한 바 있다.

이는 전주지역 초등학교 1학기 지역교과서 6,750부, 임실 250부, 완주 850부, 부안 350부에



전주전통한지 삽입 초등학교 3학년 지역사회교과서

해당하는 양으로, 올해 새롭게 남원지역 27개 초등학교 38개 학급, 600여 명의 학생들에게도 전주전통한지가 삽입된 지역 사회 교과서 680부가 추가 보급된다.

지역교과서에 삽입된 한지는 전주한지 장인 4인이 손수 제작한 전주 전통한지로, 지도와 편지지 형태로 각각 삽입·보급됐다.

전주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에는 삽화로 그려진 전주지도로 삽입됐으며, 2학기에는 오려서 쓸 수 있는 색지 형태로 삽입될 예정이다. 임실군과 남원시는 편지지 형태, 완주군과 부안군의 경우 간지 형태로 각각 삽입됐다.

한편 센터는 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유발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찾아가는 전주한지이야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김도영 원장은 "전주 전통한지의 확산 보급을 위해 올해는 남원과 손을 맞잡았다"며 "지역 사회교과서 보급사업 확대는 물론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도립미술관, '전북청년 2023' 개최

서완호·최은우·박세연 청년 작가 3인 참여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오는 17일부터 '전북청년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청년'은 전북도립미술관이 해마다 3명 내외의 역량 있는 청년 작가를 선정해 신작 제작 지원 및 비평가 1:1 매칭, 그리고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공모 기획전이다. 올해로 9년째를 맞는 '전북청년'은 지금까지 지역 미술계에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동시에 미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매해 전북의 청년 작가를 조명해왔다. 이에 따르면 서완호·최은우·박세연 작가가 이번 '전북청년 2023'의 참여 작가로 선정됐다.

먼저, 서완호 작가는 감정이 배제된 도시 풍경 묘사를 통해 역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감정 전달 방식을 만들어내는 회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또 최은우 작가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방불케 하는 세밀한 묘사로 현대 사회의 근원적인 감정인 외로움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박세연 작가는 사진, 설치, 영상 및 사운드 작업을 통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기록한다.

전시는 3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본관에서 진행된다. 작가 3인의



작업 세계를 훑을 수 있는 인터뷰 영상과 현재 전북도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세 작가의 과거 작품까지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j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063-290-687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문화도시 익산, '1시민 1미술' 프로젝트 본격화

24일까지 3개 분야 수강생 모집

익산시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시민 1미술'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시는 문화도시지원센터는 '1시민 1미술' 프로그램 수강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 누구나 미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시범으로 수채화와 서예(캘리그래피

포함), 문인화 등 3개 분야에 약 15개팀의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18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같이 배우고 싶은 지인, 가족, 친구들과 5~10인의 팀으로 구성되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팀은 심사를 거쳐 지난 2월 확보된 강사들과의 매칭 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6월까지 총 12주 동안 본격적인 강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 장소는 시민들의 교류와 참여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공장소를 위주로 선정해 협의 후 수강팀이 최종

결정한다.

원도연 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주변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원을 확대해 일상 속 예술로 행복해지는 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ulturecityiks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신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문화도시지원센터(070-4172-6468)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반디여행권 한 장으로 무주 여행 즐겨요"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가 풀리고 봄을 손짓하는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0대 관광매력 도시로 꼽히는 무주가 '반디여행권'으로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은 △머루와인동굴(입장)과 △산골영화관(영화관람권),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입장), △반디랜드(한국관광 100대 명소) 천문과학관(입장), △무주창고(카페 아이스아메리카노 1잔 제공/음료변경 시 3천5백 원 할인), △나뭇카페(아메리카노 또는 어린이 음료 1잔 제공), △태권도원(한국관광 100대 명소 모노레일 & 체험관 포함 입장권)등 대표 명소 7곳을 패키지로 묶은 반디여행권(모바일 티켓)을 1만1천9백 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여행권을 소지한 방



문객은 식사와 숙박, 레저, 체험 등이 가능한 관내 가맹점 34곳을 5~3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배점욱 팀장은 "반디여행권 한 장이면 무주군 대표 관광지 자유이용시설로 이용할 때보다 32% 저렴

한 가격(정상이 3만6천5백 원)에 둘러볼 수 있다"며 "패키지도 무주에 오시면 꼭 둘러 봐야 할 곳, 방문객들이 추천하는 명소들뿐만 아니라 구성했기 때문에 만족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창구를 일원화시켜 반디여행권을 판매하고 있다"며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를 비롯해 네이버와 티몬, 옥션, 11번가 등 20여 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반디여행권 구입 및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이용객들의 후기를 살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반디여행권 이용객은 7만4천여 명으로 2020년 1만2천여 명, 2021년 2만8천여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여서 향후 무주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칠 효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성 기자

# 김제시, 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모두 ON 조성 완료

김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2022년 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 1억원(국비,시비)의 예산으로 김제시립도서관 4층 디지털실 내에 카메라, 프롤프트, 마이크 등 각종 영상 장비와 편집 장비는 물론 방음시설을 갖춘 미디어 창작공간 모두 ON을 조성 완료했다.

시설의 이용은 우선 전화 예약이나 직접 4층 디지털실 내에 신청서 작성 후 편집 및 영상촬영

공간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성주 시장은 "도서관이 지식정보 전달과 휴식 제공 장소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콘텐츠 창작활동 지원 등의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보며, 시민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부안군, 영화 '영웅' 무료 상영

부안군은 영화 '영웅'을 오는 16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하루 2회에 걸쳐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 '영웅'은 1909년 10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일본 법정의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하던 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까지의 잊을 수 없는 1년을 그린 작품이다.

이 영화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오리지널 뮤지컬 '영웅'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해당 뮤지컬에서 10년 넘게 무대를 이끌어온 '정성



화'가 안중근'역으로 연기를 선보인다. 또한, 뛰어난 노래실력으로도 주목받은 배우인 '김고운'은 적진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일본의 정보를 빼내는 독립군 정보원 역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나문희, 조재윤, 배정남, 이현우

등 뛰어난 배우들이 출연하여 기대가 크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로 12세 이상 선착순 입장이며, 공연장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